

고 신효순, 심미선양을 위한 추모제(안)

● 제목 : 고 신효순, 심미선양을 위한 추모제

● 취지 : 신효순양과 심미선양이 장갑차에 의해 처참하게 압사당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한국법무부에서는 7월10일 미군측에 형사재판권 포기를 요청하였지만 미군측은 간접적으로 재판권 포기할수 없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고 한미소파협정상 재판권포기요청한지 4주이내에 미군은 공식적인 답변을 한국법무부에 주어야 합니다. 이에 여성계에서 힘을 모아 미군측이 재판권 포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신효순, 심미선양의 넋을 위로하는 일일뿐 아니라 제2의 효순이, 미선이가 나오지 않도록 미군범죄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목적 : 미군측의 재판권 반환, 미 부시대통령의 공개사과, 불평등한 한미소파 협정 개정, 공동진상 조사단 구성

● 행사일시 : 2002년 7월25일 (목) 오전 11시 - 12시 | 2~1시 30분

* 참조로 7/27-8/3일까지 여중생 범대위 주최 추모주간사업기간임

● 행사장소 : 인사동, 탑골공원등 ①

● 참여인원 :

● 행사내용 :

행사1부

사회 : 민우회

- ① 고 신효순, 심미선양, 미군피해자들을 위한 묵념
- ② 인사말 : 한국여성단체연합 ()
- ③ 경과보고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④ 여성들의 입장과 요구 : 여성의전화 () → 중간에 아름의 7월
- ⑤ 고인들을 위한 진혼 명상의 춤
- ⑥ 고인들께 드리는 추모의 시: ()
- ⑦ 현화 / 추모곡 (여신학자 협의회 : 중창단) → 거기다가 끄적거리를 수상으로
- ⑧ 폐회식 → 여성의 전화

여성의 저항 : 10시 10분

여성학자 협의회 : 10시 11분

서울여성연대 : "

여연 : "

각주교여성연대 : "

행사2부

서명운동 및 모금운동

● 분담금 : 각주최단체별 20만원씩 분담 송금/우리은행(064-157851-13-101), 평화여성회

예산(안) : 엠프 (30만원), 현화꽃 (5만원), 현수막 (15만원), 섭외비 (10만원)

사진촬영, 비디오 촬영 및 진행비 (20만원), 분향소 설치 (7만원)

사진대여비(3만원-5만원), 무대설치비, 퍼포먼스 (10만원), 예비비(20만원)

- 총계: 120만원

논의

1. 현수막 1

1. 사이즈 (가로: 세로:)

근 여중생 故 신효순, 심미선양의 명복을 빕니다. 조

주최 :

후원 :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현수막 2

효순이와 미선이를 살려내라!

- 형사 재판관할권 반환
 - 미대통령 공개사과 사진1(신효선) 사진2(심미선)
 - 진상조사단 구성
 - SOFA 전면적 개정

주최 :

후원 :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2. 참여자의 복장 및 장신구

고신효순, 심미선양을 위한 추모제 / 역할분담

진행 내용	담당	세부 내용
장소섭외 / 7월18일까지	(1명)	장소섭외 및 집회신고가 필요시 집회신고
사진전시	(2명)	자동협에 의뢰, 운반및반환담당
추모시	(1명)	추모식작성 또는 기존의 추모시 준비, 낭독자섭외
추모곡	(1명)	기수섭외 CD 여여 비를알리자수는나, D드래그레버
사건경과보고	(1명)	사건경과 일지 준비 (여중생범대위에 의뢰)
내용기획	(1명)	내용기획, 공연재료 및 공연자섭외, 연습진행,
성명서	(1명)	작성, 낭독자섭외
서명운동 및 모금운동	(5명) 예연	서명가판대설치, 서명판구입, 펜, 서명운동 진행자 및 담당자 섭외, 서명운동진행
유인물 배포	(4명) 표정여, 풍물	유인물 배포자 섭외, 유인물 준비 (여중생 범대위에 의뢰), 유인물배포진행
풍물	(1명)	풍물담당자 섭외
분향소 설치	(2명)	여중생 2명 영정사진, 분향대, 향, 국화꽃 100송이준비, 현화담당 (여중생 범대위에 의뢰)
흰상복 또는 흰천준비	(2명) 가을아래.회우.	흰상복 또는 흰천준비, 운반 및 반환
현수막	(1명) 성폭력防止	주문, 운반
마이크, 앰프, 무대설치	(2명)	마이크 및 앰프시설 준비 및 설치
사진촬영	(1명)	사진촬영 및 인화 (CD제작)
비디오 촬영	(1명) 여자	비디오 촬영 및 제작
언론홍보	(1명) 김현희	언론사에 행사내용 홍보
추모비	여전, 교회여성연합	

추모비

기자